

제주 종합스포츠타운 민자 유치 가능할까

타당성·경제성 최종 보고회... 복합시설 최적안 제시 면세점·대기업 유치 등 실현 가능성 두고 논란 전망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체육 분야 공약사업인 '제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대규모 민자유치 가능성 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0일 제주월드컵센터에서 '제주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진은 중간보고회 때 국제대회 개최 가능여부로 논란이 됐던 스포츠시설 규모를 키우는 대신 축구경기장을 메인스타디움으로 하는 4층 규모의 복합엔터테인먼트센터 등 상업용 임대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제안, 최종 대안으로 제시했다. 1만5000석 규모의 축구장과 35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1000석 규모의 스포츠 컨벤션 2개, 전문체육단련실과 호텔과 태권도

장, 그리고 10레인 규모 수영장 등이 들어선다. 야구장은 부분 철거해 리뉴얼하고 수영장은 증축, 에항구장은 육상전용구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중간보고회 때와 달리 수영장과 육상경기장을 리뉴얼하면서 국제대회 등이 가능하도록 했고 총사업비는 8447억원으로 추정됐다.

2안은 1안의 콘셉트에서 야구장을 완전히 철거해 상업용 임대시설을 배치하고 축구경기장의 사업규모를 줄여 사업비를 5655억원대로 낮췄고 3안은 기존 시설물을 대부분 남겨두고 주경기장과 한라체육관 시설만 보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976억원이다.

문제는 최적 대안인 1안과 2안 모두 민자 유치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역진은 상업시설 내 면세점 운영권을 기본

토대로 기존 상권과 충돌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지정면세점이나 외국인 면세점을 유치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다.

하지만 현 제주공항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항 내 접근성을 뿌리치고 제주스포츠타운으로 옮길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특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지정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관광공사도 공항 내 입주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진의 희망이 실현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기업까지 유치범위를 확장할 경우 기존 상권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데다 서울 등 대도시의 1/10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유동인구 등을 감안할 때 선뜻 나설 기업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1만5000석 규모의 축구경기장인데도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주차장 규모를 2000~3000대 정도만 산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최종 보고회에 참석한 제주시 오라동 주민들은 "주차장 규모를 5000대 규모로 증대하지 않을 경우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고 반발했다.

이밖에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주종합경기장 외곽 이전 여부에 대해 용역진은 사업 타당성, 신규부지 확보, 예산, 이용률 문제를 들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용역진 관계자는 "제주시 도심에서 20km까지 이전 가능 대상을 살펴봤을 때 사실상 가능하지는 중간간 지역 밖에 없고 이럴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상업시설 배치가 어려워 사업비를 제주자치도 예산으로 채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는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내부 검토와 추가 자문을 거쳐 최적 대안을 선정,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위영석기자 vswi1968@ihalla.com



리얼클럽 어워드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김도영.

연합뉴스

KIA 김도영 모두가 인정한 '올해의 선수'

정규시즌 MVP 이어 2관왕

김도영(21·KIA 타이거즈)은 2024년 겨울, 가장 바쁜 한국프로야구 선수다.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4 컴투스프로야구 리얼클럽 어워드' (한국프로야구 선수협회 시상식)에서도 김도영은 동료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과 팬 투표로 선정한 '팬스 초이스'를 모두 수상했다.

지난달 26일 KBO 시상식에서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누린 김도영은 12월의 첫날에도 트로피 수 집을 이어갔다.

리얼클럽 어워드가 끝난 뒤 만난 김도영은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는 동료, 한국 야구의 근간인 팬들께서 주신 상이어서 더 의미가 크

며 "최근에 정말 바쁘다. 행복하

비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웃었다. 올해 정규시즌에서 김도영은 타율 3위(0.347), 홈런 2위(38개), 타점 공동 7위(109개), 득점 1위(143점), 장타율 1위(0.647), 최다 안타 3위(189개), 출루율 3위(0.420), 도루 6위(40개) 등 KBO리그 타자 시상 8개 부문에서 모두 10위 안에 들었다.

김도영의 맹활약을 앞세워 KIA는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했고 한국시리즈도 제패하며 2017년 이후 7년 만에 통합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김도영은 "2025년에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며 "타격 지표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른 타격, 찬스를 살리는 타격'에 힘을 생각이다. 수비에도 많은 신경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SK 38점 차 대승... 파죽의 7연승

프로농구 선두 서울 SK가 수원 kt를 물리치고 파죽의 7연승을 달렸다.

SK는 1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kt에 100-62로 크게 이겼다.

SK는 자비 위니와 김선형이 내외곽에서 득점포를 끊임없이 가동하며 승리를 앞서나갔다.

7연승을 달린 선두(11승 2패) SK는 2위(8승 4패) 울산 현대모비스와 격차를 2.5경기로 벌렸다.

SK는 또 13경기 만에 전 구단 상대 승리를 신고했다. 올 시즌 전 구단을 상대로 승전고를 울린 팀은



자비 위니.

연합뉴스

SK뿐이다. 8승 6패의 kt는 4위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대구, 충남아산 꺾고 K리그1 '생존 성공'

1차전 패배 뒤 2차전 승리 합산 점수 앞서 1부 잔류

프로축구 대구FC가 연장 접전 끝에 충남아산의 승격 도전을 힘겹게 뿌리치고 내년에도 K리그1에서 뛰게 됐다.

대구는 1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K리그2 충남아산과 하나은행 K리그 2024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3-1로 승리했다.

지난달 28일 1차전 원정에서 3-4로 패했던 대구는 2차전 홈 경기에서 3-1로 승리, 승강 PO 전적 1승 1패로 충남아산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2차전 합계 스코어 6-5로 앞서며 K리그1 잔류에 성공했다.

전반전 키오프와 함께 대구의 강한 공세가 펼쳐졌다.

대구는 전반 7분 세징야의 침투 패스를 받은 안창민이 골 지역 왼쪽 부근까지 쇄도한 뒤 오른발 슈팅을 때린 게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득점 기회를 놓쳤다.

전반 추가시간 기다리던 대구의 득점포가 터져 나왔고, 주인공은 세징야였다.

세징야는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에드가에게 패스하고서 골대 정면으로 쇄도했고, 에드가가 투입한 패스를 충남아산 수비수 최희원이 차냈지만, 불이 쇄도하던 세징야의 몸에 맞고 골대 앞으로 흘렀다.

세징야는 재빨리 오른발 슈팅으로 충남아산의 골그물을 흔들었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대구는 38분 에드가의 추가골이 터지며 한 발 더 앞서 나갔다.

세징야의 오른쪽 코너킥이 수비수 맞고 뒤로 흐르자 이웅래가 페



1일 대구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2024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대구FC와 충남아산FC의 경기. 대구FC 이찬동이 연장 전반 득점에 성공한 뒤 기뻐하고 있다.

널티 아크 왼쪽 부근에서 오른발 슈팅을 때렸고, 골 지역 왼쪽에서 있던 에드가가 오른발로 방향을 살짝 바꿔 골 그물을 흔들었다.

하지만 충남아산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충남아산은 후반 추가시간 최희원이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때린 오른발 슈팅이 에드가의 오른팔에 맞으면서 페널티킥을 따냈고, 주닝으

가 키커로 나서 만회골을 넣었다.

1. 2차전 합계 스코어 5-5가 된 두 팀은 연장 승부에 들어갔다.

대구는 연장 전반 3분 황재원이 오른쪽 중원에서 투입한 크로스가 충남아산 수비수 머리에 맞고 골 지역 왼쪽으로 떨어지자 쇄도하던 이찬동이 왼발 발리 슈팅으로 골을 꽂아 K리그1 잔류의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1:10 TV소 토크명품(재)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7:00 TV 유치원 7:30 생생정보 스페셜 8: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30 일일드라마 스캔들(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강극장 스페셜 11:20 살림하는 남자들(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친절한 선주씨(재) 8:30 TV 전국시대 9:30 930 MBC 뉴스 9:45 기본 좋은 날 10:45 뽀뽀보 좋아좋아 11:15 헬로키즈 공학교실(재) 11:30 한글용사 아이야(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종로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잘 먹고 잘 사는 법 플러스 11:00 푸르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8:00 땀방울 유치원 8:20 한글용사 아이야 9:40 PD로그 10:30 한국기행 12:10 극한직업 13:00 EBS 평생방송 15:1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7:10 명탐정 피트 4 17:40 드래곤 길들이기
12:00 KBS 뉴스 12 13:00 넷워킹 공동기획 문화스케이프 14:00 KBS 뉴스 14:10 특별 생방송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15:10 이웃집 찰스(재) 16:00 사사간건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40 영화가 좋다(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출동! 유우구조대 2(재) 16:00 TV 유치원(재) 16:30 스튜디오 K 스페셜 17:10 세상의 모든 대구	12:00 12 MBC 뉴스 12:25 오늘N(재) 13:25 헬로키즈 TV생물도감(재) 13:55 2시 뉴스 워진 15:55 기본 좋은 날(재)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트리트 클럽	12:00 SBS 12 뉴스 12:50 이경규의 경이로운 습관(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국민맞춤(재) 17:00 SBS 오 뉴스 17:35 JIBS 저녁 뉴스 17:50 먹단방	7:00 KCTV 아침 뉴스 8:10 나혼자 여행지도 9:30 특목TV 다투어 10:30 취미로 먹고 산다 12:40 KCTV 시청자세상 13:20 KCTV 디류스페셜 15:00 KCTV 15시 뉴스 15:20 살림의 왕 17:00 KCTV 17시 뉴스 17:30 KCTV 시청자세상 18:00 남민동 고향리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연말 기획 우리말 겨루기 20:30 일일연속극 결혼하지 않겠어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2:55 KBS 뉴스리인W 23:35 우리 집 골동품(재)	18:00 경제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신데렐라 게임 20:30 스크류 22:25 더 먼나라(재) 23:55 아이 러브 스포츠	18:05 대구 M 19:05 친절한 선주씨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폭 쉬면 다행이야 22:45 오영영 리포트 결혼지옥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22: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23:50 나이트라인	제주 CBS FM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봉규의 여행가요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저녁종합뉴스 18:00 한민승부 20:00 CBS 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양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2일

김종삼 지단(해)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 (010-5233-6136)

36년 예전과 같지 않다. 경제적으로 힘이 드는 날이다. 48년 맑은 분주하고 이동, 변동 변화가 찾아온다. 60년 내주머니 사람과 자주 비교하는 일이 생기니 소신을 가질 것. 72년 누구에게나 관대하고는 날이다. 정전을 많이 할 것. 84년 이성인이 있고 취업용·시업인이 있는 날.

42년 분심 많습수가 있으니 지갑, 물건을 잘 챙길 것. 54년 돈에 이익이 있기도 하고 가야할 곳도 생긴다. 66년 새로운 투자 전환을 하고 싶어하며 정보를 많이 알리고 한다. 78년 새로운 이성교제 또는 사회활동에 참여 하려고 한다. 90년 갈등과 변심이 많다. 가정에선 금전적 문제로 대화 단절.

37년 직업에서 고민이 생기고 갈 곳이 많아진다. 49년 유통업·미용·피부·의류업종 이익이 증가하고 때때 등으로 이익이 생기기도 한다. 61년 소멸 또는 이사 등으로 문외하고 금전적 지출도 생긴다. 73년 개인사업, 창업 길하다. 85년 함께 일을 하게 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

43년 마음이 답답하면 산, 바다로 나가서 휴식을 가져라. 취미생활 권장. 55년 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시작하는 일은 보류하는게 낫다. 67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니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좋다. 79년 동쪽에서 행운이 오고 붉은색이 행운색. 91년 건강이 최고의 선물. 운동계획 수립, 실천 생활화.

38년 인간관계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처세술이 필요. 50년 모임이나 여행이 기다리고 친목도 필요. 62년 하는 일에 호전되나 인척이 다소 부족하니 대인관계가 필요. 74년 몸이 휴식을 취하고 싶어도 집안에서 연락이 와서 나를 찾는다. 86년 한가지 직업에 충실해야 하나 변화를 주려 한다.

44년 전전적, 자영업에 기쁨, 음식, 예식업, 사우나 업은 손님 왕래가 많다. 56년 주판있게 시간활용을 잘하면 이익이 크다. 68년 신규 창업 시 함께 대책을 강구해 공존·공생하는 것이 유리하다. 80년 신경이 예민하며 따지려 하는 마음이 강하다. 92년 기쁜 소식이 오고, 인심 쓸 일이 생긴다.

39년 의욕이 강하나 너무 열정적인 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 51년 외출이나 만남, 모임이 기다리고 있다. 63년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욕망이 강하다. 때때·문서운 원만. 75년 지원 또는 도와줄 일이 생기고 외출하는 일이 생긴다. 87년 일이 지연되고 만반의 성과가 미약하다.

45년 가정 안에서 불화가 생기니 외부 활동이 원만하다. 57년 탁월한 언변 전화력으로 인정 받는다. 69년 업무나 맡은 일을 대충하면 평생의 소지가 발생하니 마무리를 잘하라. 81년 직업으로 갈등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라. 미혼은 애정결핍을 느낀다. 93년 궤도를 벗어난 행동을 취하면 구설이 된다.

40년 정신적 스트레스가 올 수 있으니 마음을 넓게 갖는 여유 필요. 52년 함께 모여 기쁨이나 정보를 얻게 된다. 술은 자제하고 유머가 필요한 날. 64년 신발·패션·그릇분야·이벤트업은 생기가 된다. 76년 아랫사람과 유대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 필요. 88년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한 걸음 물러서라.

46년 몸을 분주히 움직이거나 멀리 출타할 일이 생긴다. 58년 약속에 차질이 생기거나 취소된다. 70년 나의 지혜로움이 상대에게 기쁨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도 있다. 82년 생각없이 일을 하다보면 손실만 많으니 철저한 계획이 필요. 94년 인행으로 인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주니 큰 소리는 자중.

41년 자녀의 일이나 자신이 하는 일에 변화를 주고 싶어도 추진한다. 53년 새로운 마음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라. 아랫 사람의 공이 따른다. 65년 스포츠,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거나 식당에 가게 된다. 77년 취업 또는 전문직격을 가진 사람은 기쁜 소식이 오기도. 89년 친구따라 식당에 가서 반가운 소식을 접한다.

47년 어떤 일이나 마음을 먹고 추진한다면 미루지 말고 추진하라. 59년 직업 변동이나 신규사업을 하려고 움직인다. 71년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저축 또는 미래설계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83년 서두르는 것보다 안정 속 한 곳에 집중해 투자하라. 95년 외출이나 방문 시 귀가는 가능한 늦지 않아야 한다.